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입	계	168,231	185,722	186,244	223,878
	보험료수입	131,807	148,745	151,969	185,516
	국고지원금	27,792	28,567	26,957	28,698
	담배부담금	8,632	8,410	7,318	9,664
지출	계	157,437	170,043	173,822	224,625
	보험급여비	149,522	161,311	165,933	214,893
	관리운영비	7,085	7,901	7,509	8,968
	기타지출	830	831	380	764
당기수지		10,794	15,679	12,421	-747

주 : 1) 총수지율 = $\frac{\text{총지출}}{\text{총수입}} \times 100$

2) 순수지율 = $\frac{\text{보험급여비}}{\text{보험료수입}} \times 100$

- ① 2006년 건강보험의 총수지율은 2003년보다 증가했다.
- ② 2006년 건강보험의 순수지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 ③ 건강보험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 ④ 2006년 전년대비 건강보험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을 초과한다.
- ⑤ 2005년 건강보험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는 보험급여비 항목의 지출증가에 기인한다.

2. 다음 <표>는 5개 도시의 경쟁력 산출을 위한 평가요소별 평가결과이다.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각 도시별 경쟁력 총지수를 계산할 경우 3위에 있는 도시는?

<표> 도시경쟁력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구 분			도시				
			가	나	다	라	마
평가 요소	긍정적 평가요소	취학연수	12	15	13	14	10
		평균소득	200	210	250	240	220
	부정적 평가요소	실업률	5	6	7	8	3
		빈곤인구 비율	15	20	17	19	16

<정 보>

※ j 도시의 i 평가요소 경쟁력 세부지표(Y_{ij})

- 긍정적 평가요소별 경쟁력 세부지표 산출식
(긍정적 평가요소 : 취학연수, 평균소득)

$$Y_{ij} = \frac{j \text{ 도시의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 \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소값}}{\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대값} - \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소값}}$$

- 부정적 평가요소별 경쟁력 세부지표 산출식
(부정적 평가요소 : 실업률, 빈곤인구 비율)

$$Y_{ij} = \frac{\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소값} - j \text{ 도시의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대값} - \text{각 도시 } i \text{ 평가요소 변수값 중 최소값}}$$

※ 도시별 경쟁력 총지수 $X_j = \sum Y_{ij}$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3. 다음 <표>는 2006년도 월별 화재현황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6년도 월별 화재현황

구분	화재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이재가구수 (가구)	이재민수 (명)
계	31,778	446	1,734	150,792	1,635	3,836
1월	3,357	74	177	17,627	178	438
2월	2,826	54	131	14,387	167	395
3월	3,438	33	170	15,139	16	394
4월	2,658	43	187	12,072	111	278
5월	2,394	35	139	11,256	85	200
6월	2,176	31	130	10,373	116	296
7월	1,969	33	135	8,131	55	13
8월	2,323	20	114	9,836	101	215
9월	2,241	25	134	10,090	114	325
10월	2,537	28	147	11,518	277	469
11월	2,638	29	118	14,418	121	298
12월	3,221	41	152	15,945	149	389

<보 기>

- ㄱ. 화재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건수의 합은 전체 건수의 약 17%이다.
- ㄴ. 동절기에 속한 달(12, 1, 2월)은 동절기에 속하지 않은 달보다 화재건수가 항상 많다.
- ㄷ. 이재가구당 재산피해액이 가장 적은 달은 10월이다.
- ㄹ. 동절기(12, 1, 2월)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인원은 2006년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전체인원 수의 약 15%이다.
- ㅁ.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달의 재산피해액은 가장 적은 재산피해를 입은 달의 재산피해액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4. <표1>, <표2>와 <그림>에 대한 <정보>의 설명을 토대로 A~E에 해당하는 주택유형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정 보>

- 거주지를 옮길 때 고려 사항으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규모와 교통을 각각 환경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주택 거주자의 경우 교통을 제외한 기반여건 항목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 20대 이하 연령대에 있는 가구주들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의 점유형태 중에서 자가형태가 절반을 넘는다.

<표1> 거주지를 옮길 때 고려 사항

(단위 : %)

고려 사항 주택 유형	주 택				기반여건				기타	합 계
	주택 가격	주택 규모	주택 유형	주택 시설	교통	편의 시설	교육 환경	환경		
A	38.69	26.54	3.18	4.30	17.94	0.56	2.62	4.30	1.87	100.00
B	26.90	17.25	4.27	6.80	19.30	3.48	3.96	12.82	5.22	100.00
C	29.32	21.70	3.47	5.30	19.38	3.86	3.28	10.80	2.89	100.00
D	20.33	15.20	4.76	3.48	16.67	4.03	8.79	19.14	7.60	100.00
E	38.46	15.38	7.69	5.77	26.92	1.92	0.00	1.92	1.92	100.00

<표2> 가구주 연령별 주택 거주 특성

(단위 : %)

연령대 주택 유형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A	30.16	15.73	10.85	12.78	18.00
B	16.67	18.54	19.09	23.31	12.50
C	37.30	25.00	29.93	36.47	50.00
D	14.29	39.47	37.74	25.56	17.50
E	1.59	1.26	2.39	1.88	2.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림> 주택유형별 점유 형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주택
①	A	B	C	D	E
②	A	B	D	C	E
③	B	A	D	C	E
④	C	A	E	B	D
⑤	C	B	D	A	E

5. <그림1>과 <그림2>는 A공공시설 이용자의 거주지까지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분포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이 공공시설 이용자들은 도보, 자가용, 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함)

<그림1> 교통수단별 A공공시설 이용자의 거주지까지 통행시간에 따른 이용자 분포 비율

<그림2> 교통수단별 A공공시설 이용자의 거주지까지 통행시간에 따른 누적분포 비율

<보기>

- ㄱ. 이용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A공공시설에서 거주지까지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짧은 이용자일수록 이 공공시설의 전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 ㄴ. A공공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통행시간이 40분을 초과한 거주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버스 이용자이다.
- ㄷ. 교통수단 각각에 대해 A공공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 통행시간이 20분 이내인 이용자 분포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ㄹ. A공공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20분을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공공시설 이용시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ㄴ, ㄷ, ㄹ

6. 다음 <표>는 OECD 주요 국가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조세총액 대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조세총액 대비 구성비(2004년)
 (단위 : %)

구분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급여세	재산관련 조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기타조세
연방국가							
미국	70.7	19.0	-	2.1	-	8.2	-
독일	33.6	4.4	-	-	28.9	33.1	0.0
오스트리아	31.2	7.3	18.0	0.4	24.9	13.3	4.9
벨기에	48.4	21.6	4.2	2.9	4.4	17.7	0.8
호주	57.9	26.2	0.2	0.1	0.6	14.6	0.4
단일국가							
덴마크	30.8	9.2	0.7	2.2	31.7	17.5	7.9
핀란드	22.8	11.9	4.0	2.8	36.0	20.5	2.0
프랑스	18.3	15.2	6.2	4.5	38.8	14.8	2.2
스페인	29.6	26.0	2.7	0.1	28.6	10.4	2.6
영국	38.0	10.7	-	9.6	25.2	14.9	1.6
일본	31.4	23.8	-	5.4	20.7	16.4	2.3
한국	20.0	21.3	-	4.0	29.3	23.6	1.8

<보기>

- ㄱ. 연방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ㄴ.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단일국가보다 연방국가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ㄷ. 조세총액 대비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다.
- ㄹ. 한국의 경우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연방국가에 비해 낮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표>는 우리나라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별 단위당 가공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미곡종합처리장 규모별 단위당 가공비용
 (단위 : 원/40kg)

구분 \ 가공량	4,000톤 미만	4,000~8,000톤	8,000톤 이상
포장비(A)	665	653	702
인건비(B)	3,227	1,842	1,050
제조비(C)	4,105	3,108	1,415
가공비 (A+B+C)	7,997	5,603	3,167

<보기>

- ㄱ.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포장비가 감소한다.
- ㄴ.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가 클수록 인건비 총액이 감소한다.
- ㄷ.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가 클수록 가공비에서 제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 ㄹ. 미곡종합처리장의 단위당 가공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가 작은 것이 유리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 다음 <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지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지표추이

구분 \ 연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GDP (톤/십억원)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민간최중소비지출(톤/십억원)
1999	45,614	0.0855	0.1659
2000	46,438	0.0803	0.1487
2001	48,499	0.0801	0.1412
2002	49,902	0.0776	0.1310
2003	50,737	0.0774	0.1304
2004	50,007	0.0721	0.1246

<보기>

- ㄱ.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의 전년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GDP 증가율보다 낮다.
- ㄷ.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의 전년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민간최중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낮다.
- ㄹ.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의 전년대비 GDP 증가율은 전년대비 민간최중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⑤ ㄷ, ㄹ

9. 다음 <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명)	건강 (%)	가족간화목 (%)	돈 (%)	인간관계 (%)	사회적지위 (%)	
전체	1,634	60.3	18.1	10.6	3.2	2.5	
성별	남자	813	56.7	16.7	13.5	3.2	3.8
	여자	821	63.8	19.6	7.7	3.2	1.3
연령별	10대	161	34.4	19.5	13.9	15.1	3.1
	20대	336	47.9	17.7	17.3	4.1	5.4
	30대	346	65.7	16.7	9.9	1.2	3.1
	40대	339	63.8	23.5	8.1	1.0	0.5
	50세이상	452	72.0	14.9	6.7	1.4	1.3

<보 기>

- ㄱ. 30대와 40대에 조금의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 ㄴ. 사회적 지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수는 10대와 30대가 같다.
- ㄷ.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2%이다.
- ㄹ. 10대이면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1.5%이다.

- ① ㄱ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0. 다음 <표>는 2005년과 2006년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2005년				2006년				
	4/4분기		연간		4/4분기		연간		
	증감률 (A)		증감률 (B)		증감률 (A)	구성비	증감률 (B)		
소득	2,941.2	4.1	2,919.8	4.1	3,168.0	7.7	3,068.9	100.0	5.1
경상소득	2,790.9	3.5	2,756.3	3.6	2,973.3	6.5	2,890.2	94.2	4.9
근로소득	1,824.0	3.2	1,813.4	3.2	1,969.5	8.0	1,917.4	62.5	5.7
사업소득	669.3	3.0	653.6	1.2	676.8	1.1	665.7	21.7	1.9
재산소득	64.9	-6.7	64.2	4.0	73.7	13.5	67.1	2.2	4.4
이전소득	232.6	11.2	225.1	15.2	253.3	8.9	240.2	7.8	6.7
비경상소득	150.3	14.8	163.5	13.0	194.8	29.6	178.6	5.8	9.2

주 : 1) A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B는 전년대비 증감률

- ① 2006년 4/4분기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였다.
- ② 2005년에 전년대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소득부문은 이전소득이다.
- ③ 2006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소득부문은 비경상소득이다.

- ④ 2005년과 2006년에 모든 소득부문에서 4/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 가구당 월평균소득보다 높다.
- ⑤ 사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부문에서 2006년 4/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2006년의 전년대비 증감율보다 높다.

11. 다음 <표>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조세 및 공적·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빈곤완화효과

(단위 : %)

구분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빈곤율	일차소득	9.8	10.3	10.1	11.6	12.2	11.9	12.0	12.3	13.7	14.7	15.0
	시장소득	8.8	9.5	9.1	10.7	11.2	10.6	10.7	11.1	12.3	13.3	13.2
	총소득	8.7	9.3	9.5	10.7	11.0	10.4	10.2	10.5	11.6	12.4	12.4
	가처분소득	7.9	8.4	8.7	10.3	10.5	9.6	9.7	10.2	10.7	11.6	11.6
빈곤완화효과	사적이전소득	10.2	7.7	9.9	7.7	8.2	10.9	10.8	9.7	10.2	9.5	12.0
	공적이전소득	1.4	2.1	-4.4	0.1	1.7	1.8	4.6	5.4	5.6	6.7	6.0
	조세	9.2	9.6	8.4	3.7	4.5	7.6	4.9	2.8	7.7	6.4	6.4

<보 기>

- ㄱ. 일차소득에 기초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소득에 기초한 빈곤율은 외환위기 시기(1998년~1999년)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ㄷ.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우리나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ㄹ. 2000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12. 다음 <표>는 성별에 따른 X기관의 직무 고용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성별에 따른 X기관의 직무 고용자료
(단위 : 명)

직무분류	남성채용자수	남성지원자수	여성채용자수	여성지원자수
A	3	6	4	6
B	1	3	1	2
C	0	1	1	10
D	85	100	2	40
E	2	3	2	2
F	3	7	4	7
합계	94	120	14	67

주) 채용률 = 채용자수/지원자수

<보 기>

ㄱ. 모든 직무에서 여성채용률이 남성채용률보다 높다.
 ㄴ. 전체 남성채용률은 여성채용률의 3배가 넘는다.
 ㄷ. 대부분의 직무에서 남성채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남성채용률이 여성채용률보다 높은 이유는 D직무에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ㄹ. 만약 각 기관별 전체 채용자 중 여성을 8% 이상 채용하도록 할당한다면, X기관은 할당기준을 충족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13. <표1>과 <표2>는 자동차 보유가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가구주 성별·연령별 자동차 보유가구
(단위 : 천가구, %)

구분	전체가구수	자동차 보유가구비율			자동차 미보유 가구비율
		계	1대	2대이상	
2000년	14,310	58.2	50.5	7.7	41.8
2005년	15,889	61.4	49.4	12.0	38.6
남자	12,391	71.3	56.6	14.7	28.7
여자	3,498	26.5	23.7	2.8	73.5
19세이하	70	2.9	2.8	0.1	97.1
20~29	1,289	38.1	34.7	3.4	61.9
30~39	3,590	76.4	64.7	11.7	23.6
40~49	4,413	75.5	58.9	16.6	24.5
50~59	2,983	68.1	51.0	17.1	31.9
60세이상	3,544	32.8	27.0	5.8	67.2

<표2> 지역별 자동차 보유가구(2005년)
(단위 : 천가구, %)

구분	전체가구수	자동차 보유가구비율			자동차 미보유 가구비율
		계	1대	2대이상	
전국	15,889	61.4	49.4	12.0	38.6
서울	3,310	54.4	46.7	7.6	45.6
부산	1,187	54.2	46.3	7.9	45.8
대구	815	65.9	50.6	15.4	34.1
인천	823	64.1	53.5	10.6	35.9
광주	460	64.8	51.0	13.8	35.2
대전	479	69.0	52.2	16.8	31.0
울산	339	75.0	60.7	14.3	25.0
경기	3,330	69.4	55.4	14.0	30.6
강원	521	61.8	47.9	13.9	38.2
충북	505	62.2	48.1	14.1	37.8
충남	660	60.7	45.7	15.0	39.3
전북	620	57.1	44.5	12.6	42.9
전남	666	50.1	40.1	10.0	49.9
경북	939	59.8	45.5	14.3	40.2
경남	1,056	62.4	49.1	13.2	37.6
제주	179	65.5	45.3	20.2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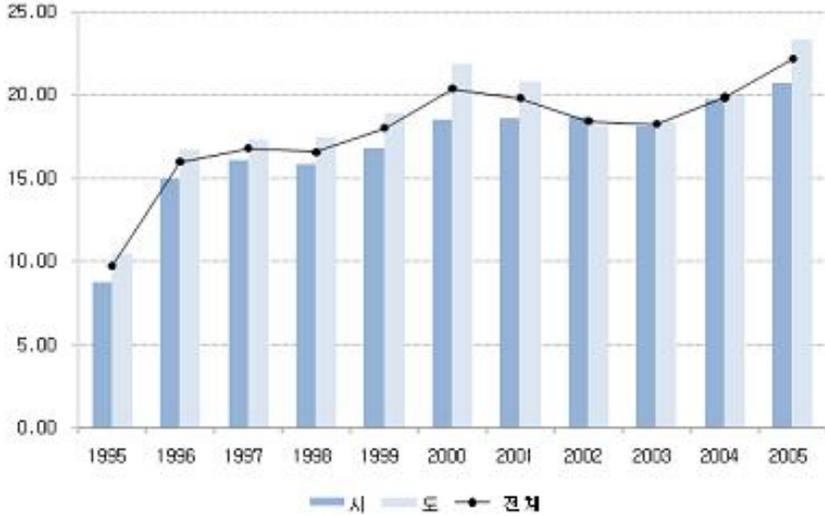
<보 기>

ㄱ. 2005년 전국의 자동차 보유가구수는 2000년에 비해 백만 가구 이상 증가하였다.
 ㄴ. 2005년에 자동차 보유가구수가 가장 많은 가구주 연령대는 30~39세이다.
 ㄷ. 2005년에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고,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다.
 ㄹ. 2005년 서울의 남자 가구주 중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은 경기의 남자 가구주 중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보다 높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4. <그림>과 <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과 그밖에 주요 사회·경제 관련 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표> 지방자치단체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구분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경제개발비 비율	시 36.3	31.8	34.2	32.4	33.9	29.7	26.0	25.6	27.1	27.0	27.1	도 59.4	48.5	49.6	51.7	45.6	41.2	54.8	42.9	45.4	40.0	38.1	전체 50.2	41.8	43.4	43.2	40.5	36.2	42.2	35.3	37.4	34.3	33.3	
실업률	시	3.5	2.9	2.8	3.7	7.8	5.4	4.7	3.8	4.1	4.2	4.3	도	1.4	1.2	1.2	1.6	4.8	3.2	2.9	2.4	2.5	2.6	2.5	전체	2.2	1.8	1.8	2.5	6.1	4.1	3.7	3.0	3.2	3.3	3.3
	노인인구 비율	시 4.4	4.6	4.8	4.9	5.1	5.3	5.6	5.9	6.3	6.6	7.0	도	8.2	8.5	8.8	9.2	9.5	10.0	10.4	10.9	11.4	11.9	12.4	전체	6.7	7.0	7.2	7.3	7.6	7.9	9.3	8.7	9.2	9.6	10.0
	재정자립도	시 79.2	83.1	79.1	72.1	70.9	74.7	70.9	75.3	76.3	76.3	73.9	도	40.7	42.5	42.5	38.1	39.0	37.9	35.7	36.5	37.4	40.6	39.3	전체	56.1	58.7	57.1	53.0	52.9	54.0	51.1	53.4	54.4	56.2	54.4

<보 기>

- ㄱ. 1995년에 비해 2005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경제개발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실업률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 ㄷ.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각 연도를 비교할 때 도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ㄹ.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1999년도와 2000년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3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도 동일한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5. <표1>과 <표2>는 우리나라 학생의 외국유학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수 (단위: 명)

연도	총 유학생 수			학생 만 명당 유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5	235	1,200	824	0.6	4.8	3.8
1996	341	1,743	1,489	0.9	7.3	6.6
1997	241	978	2,055	0.6	4.5	8.8
1998	212	473	877	0.6	2.4	3.8
1999	432	709	698	1.1	3.7	3.1
2000	705	1,799	1,893	1.8	9.7	9.1
2001	2,107	3,171	2,666	5.2	17.3	13.9
2002	3,464	3,301	3,367	8.4	17.9	18.8
2003	4,052	3,674	2,772	9.7	19.8	15.7
2004	6,276	5,568	4,602	15.2	28.8	26.3
2005	8,148	6,670	5,582	20.3	33.2	31.7

<표2> 고등교육 과정의 유학목적별 유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총 유학생 수	학위과정			어학연수
		대학	대학원	계	
2003	159,903	62,191	36,140	98,331	61,572
2004	187,683	67,399	38,494	105,893	81,790
2005	192,254	65,524	35,192	100,716	91,538
2006	190,364	77,515	36,220	113,735	76,629

<보 기>

- ㄱ.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학생 만 명당 유학생 수는 초등학교 유학생 수가 가장 적었지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유학생 수는 초등학교 유학생 수가 가장 많다.
- 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 ㄷ. 1995년~1997년 시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만 총 유학생 수와 학생 만 명당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1998년~2005년 시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만 총 유학생 수와 학생 만 명당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왔다.
- ㄹ. 2005년에 초·중·고교 총 유학생 수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지만,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 ㅁ. 2000년에는 초·중·고교 학생 중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의 비율이 각각 1.8%, 9.7%, 9.1%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각각 20.3%, 33.2%, 31.7%로 증가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16. <그림1>은 1995년과 2000년, 2005년의 성별가구주 가구율과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2>는 2000년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분위별 가구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1> 성별 가구주 가구율과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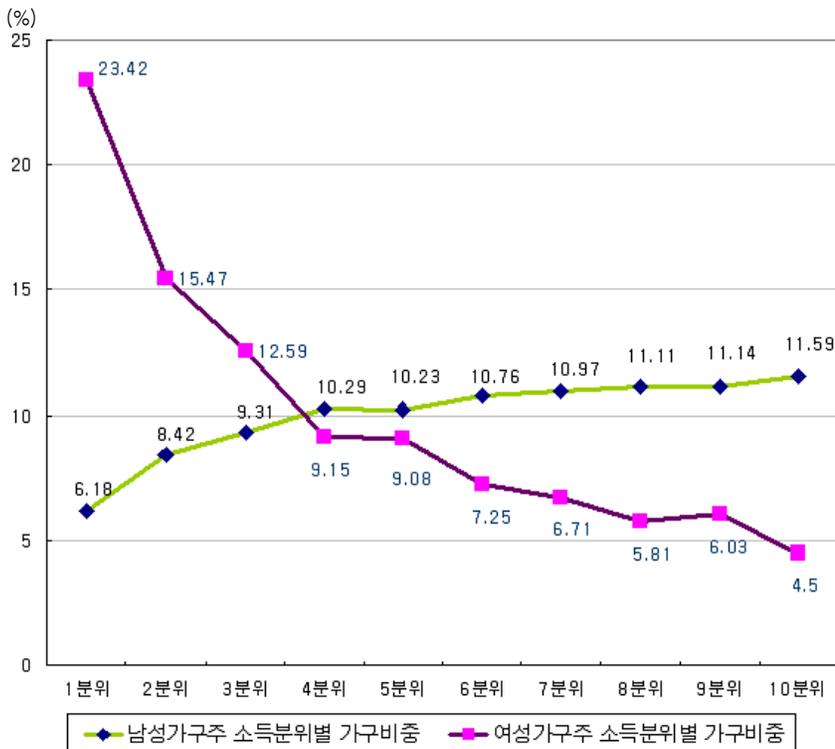
성별 가구주 가구율 (%)

성별 가구주 빈곤율 (%)

주: 1) 성별 가구주 가구율(%) = $\frac{\text{각 성별 가구주 가구수}}{\text{전체 가구수}} \times 100$

2) 성별 가구주 빈곤율(%) = $\frac{\text{각 성별 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수}}{\text{각 성별 가구주 가구수}} \times 100$

<그림2> 가구주 성별 소득분위별 가구 비중(2000년)



주) 성별 소득분위 : 각 성별 가구주 가구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것으로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을 의미함.

- <보 기>
- ㄱ. 2005년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수는 남성가구주 빈곤가구수보다 많다.
 - ㄴ. 1995년 대비 2005년 여성가구주 빈곤율의 증가율은 남성가구주 빈곤율의 증가율보다 크다.
 - ㄷ. 2000년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수는 같은 소득분위에 속하는 남성가구주 가구수보다 약 3.8배 많다.
 - ㄹ. 2000년에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각 소득분위에 인구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ㅁ. 2000년 여성가구주 가구의 50% 이상이 3분위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50% 이상이 6분위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17. 다음 <표>는 한국과 일본의 교통사고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한국과 일본의 교통사고 비교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원		인구 10만명당		인원		인구 10만명당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2001	260,579	947,169	8,097	8,747	16.9	6.8	386,539	1,180,955	831.8	927.7
2002	230,953	936,721	7,222	8,326	15.5	6.5	348,184	1,167,855	717.6	916.4
2003	240,832	947,993	7,212	7,702	15.0	6.0	376,503	1,181,431	785.6	925.0
2004	220,755	952,191	6,563	7,358	13.6	5.8	346,987	1,183,120	719.9	926.6
2005	214,171	933,828	6,376	6,871	13.2	5.4	342,233	1,156,633	708.6	905.3

- <보 기>
- ㄱ. 2005년 교통사고 1건당 부상자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많다.
 - 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한다.
 - ㄷ.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한 정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다.
 - ㄹ. 2005년 인구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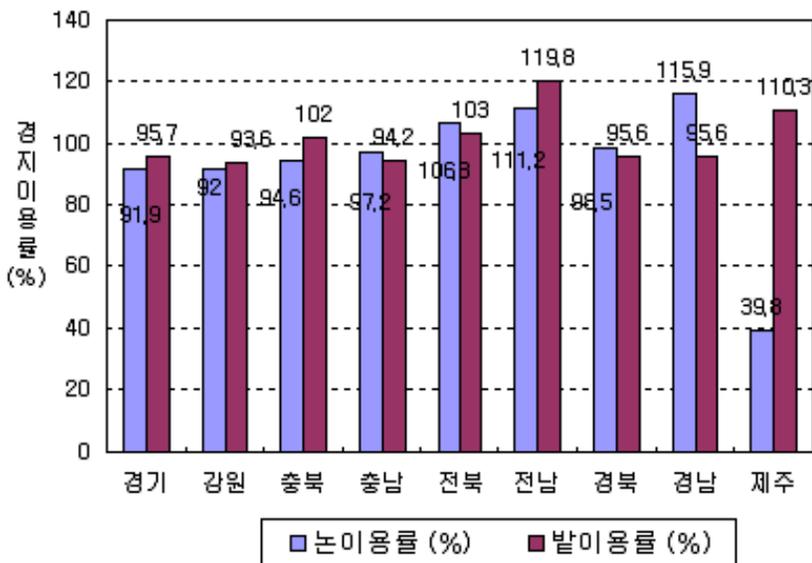
18. <표>와 <그림>은 2006년 우리나라 도별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6년 도별 경지면적

(단위 : ha)

구분	전체 경지면적	논 경지면적	밭 경지면적
경기	198,569	116,293	82,276
강원	117,012	49,245	67,767
충북	128,162	60,916	67,246
충남	249,492	183,161	66,331
전북	212,458	160,358	52,100
전남	323,645	217,883	105,762
경북	287,735	152,563	135,172
경남	171,751	113,928	57,823
제주	58,442	171	58,271

<그림> 2006년 도별 경지이용률



주) 경지이용률(%) = $\frac{\text{이용면적}}{\text{경지면적}} \times 100$

<보 기>

- ㄱ. 제주도는 논과 밭 모두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다.
- ㄴ. 경남의 논 이용면적은 경기도의 논 이용면적보다 크다.
- ㄷ. 제주도의 밭 이용면적은 경기도의 밭 이용면적보다 작다.
- ㄹ. 전체 이용면적이 전체 경지면적보다 큰 도는 2곳이다.
- ㅁ. 논 이용면적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충청이 전국에서 가장 작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19. <표>와 <그림>은 출생아수 및 출생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출생아수 및 출생률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생아수(천명)	696	678	643	616	637	557	495	493	476	438	452
출생률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	15.3	14.8	13.8	13.2	13.4	11.6	10.3	10.2	9.8	9.0	9.3

<그림> 출생아수 및 출생률 추이



<보 기>

- ㄱ. 1970년대 이후 출생아수와 출생률의 변화 방향은 대체로 유사하다.
- ㄴ. 1996년 대비 2006년 인구는 30% 이상 증가하였다.
- ㄷ. 전년대비 인구가 3% 증가하고 출생아수가 2% 증가한다면, 출생률은 하락할 것이다.
- ㄹ. 1980년대 후반에 비해서 1990년대 초반은 출생아수가 증가한 편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적이 두 번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 다음 <표>는 2006년 1/4분기와 4/4분기 그리고 2007년 1/4분기 1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2006. 1/4		2006. 4/4		2007. 1/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실질소비지출	772.1	-	822.6	-	844.9 (9.4)	-
소비지출	783.0	100.0	844.0	100.0	874.5 (11.7)	100.0
식료품	211.0	26.9	256.2	30.4	231.1 (9.5)	26.4
외식	99.4	12.7	111.4	13.2	111.5 (11.8)	12.8
주거	62.8	8.0	66.9	7.9	68.8 (9.6)	7.9
광열수도	75.1	9.6	50.7	6.0	69.5 (-7.4)	7.9
가구가사	23.8	3.0	26.5	3.1	23.8 (-0.2)	2.7
의료신발	34.6	4.4	42.7	5.1	34.6 (-0.1)	4.0
보건의료	53.1	6.8	53.7	6.4	61.3 (15.6)	7.0
교육	13.4	1.7	2.5	0.3	9.7 (-27.1)	1.1
교양오락	37.3	4.8	41.6	4.9	40.5 (8.6)	4.6
교통통신	118.4	15.1	132.6	15.7	144.0 (21.6)	16.5
통신	50.7	6.5	48.4	5.7	49.8 (-1.8)	5.7
기타소비지출	153.5	19.6	170.6	20.2	191.1 (24.5)	21.9

주 :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실질소비지출 = $\frac{\text{소비지출}}{\text{2005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보 기>

- ㄱ. 교통통신 지출액에서 통신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4분기에 비해 2006년 4/4분기에 감소하였다.
- ㄴ. 세 분기 모두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비이고, 2007년 1/4분기 식료품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7년 1/4분기 외식비는 50이 넘는다.
- ㄷ. 2007년 1/4분기의 소비지출 중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교통통신이다.
- ㄹ. 2007년 1/4분기의 2005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05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1. <정보>는 연어가 숲 또는 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표1>과 <표2>는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영양소와 개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하여 지류를 지나 하천으로 돌아온다.
- 연어 중 일부는 지류를 지나 하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곶에 잡혀 먹히며, 이 경우 잡힌 연어의 영양소는 곶에 의해 모두 숲으로 공급된다.
- 곶에 잡히지 않은 모든 연어는 하천으로 돌아와 죽음으로써 모든 영양소를 물로 공급한다.

<표1> 연어 한 마리에 포함된 각종 영양분의 평균값

(단위 : g)

영양분	무 계
칼슘	19
인	20
질소	132
지방	120
단백질	800

<표2> 매년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와 곶에 잡혀 먹는 연어의 개체수

지류명	지류를 지나는 연어 수	곶에 잡히는 연어 수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 수
A	3,907	1,183	2,724
B	786	342	444
C	818	399	419
D	5,228	666	4,562
E	6,229	2,450	3,779
F	2,010	671	1,339
G	173	93	80
H	5,837	1,949	3,888

<보 기>

- ㄱ. 연어의 영양소 중 인 : 지방 : 단백질의 비율은 1 : 6 : 40이다.
- ㄴ. 연어가 곶에 잡히는 비율이 50%를 넘는 지류는 모두 2 곳이다.
- ㄷ. 연어가 곶에 잡히지 않고 가장 많이 하천으로 돌아오는 지류는 H, D, E, A 순이다.
- ㄹ. 지류 C에서 연어에 포함된 인이 곶을 통해 숲으로 공급되는 인의 양은 약 8kg/년이다.
- ㅁ. 지류 A를 통해 하천으로 돌아온 연어가 물로 공급하는 질소의 양은 약 156kg/년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2. 다음 <표>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3가지 교통수요관리정책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부담률을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교통수요관리정책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부담률

(단위 : %)

구 분		현재 상태	유류비 인상정책	주차요금 인상정책	통근비용 보조정책
성	남성	60.88	68.84	68.72	76.45
	여성	58.71	68.14	62.59	77.12
연령	21~30세	62.23	69.61	75.65	78.11
	31~50세	61.52	70.56	66.72	77.00
	51세 이상	51.97	57.80	59.16	73.55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2.46	73.09	72.42	81.57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59.83	69.44	66.22	79.48
	350만원 이상	59.47	64.43	65.15	67.83
통행거리	10km 미만	59.92	70.97	64.81	77.50
	10km 이상~ 30km 미만	61.33	69.54	68.15	76.66
	30km 이상	59.62	66.54	68.15	75.59
통행시간	45분 미만	62.93	74.81	65.49	76.78
	45분 이상	60.20	67.82	68.04	76.47
통행목적	출퇴근 및 업무용	49.56	55.61	52.57	70.68
	비업무용	81.30	93.22	85.36	93.07

주)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따른 대중교통 전환효과
 = $\frac{\text{정책시행 후의 대중교통수단 부담률} - \text{현재상태의 대중교통수단 부담률}}{\text{현재상태의 대중교통수단 부담률}}$

<보 기>

- ㄱ. 현재상태 대중교통수단 부담률은 여성집단보다는 남성집단이, 나이가 적은 집단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
- ㄴ. 현재상태 대중교통수단 부담률은 통행거리는 단거리(10km 미만)와 장거리(30km 이상)보다는 중거리(10km 이상~30km 미만)일수록, 통행시간은 짧은 집단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
- ㄷ. 교통수요관리정책 중에서 통근비용 보조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다른 2개의 정책들보다 모든 조사대상집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ㄹ. 주차요금 인상정책은 연령이 21~30세와 51세 이상인 집단, 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집단, 통행거리가 30km 이상인 집단, 통행시간이 45분 이상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3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보이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3. 다음 <표>는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단위 : %)

합계출산율(명) 기대수명(세)	2	3	4	5	6
	50	12.7	8.8	5.5	3.7
60	15.0	8.8	5.4	3.6	2.5
70	16.5	9.2	5.7	3.7	2.6
80	18.0	9.9	6.1	4.0	2.8

주)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단산기에 이르기까지 출산하는 평균자녀수

<보 기>

- ㄱ. 합계출산율이 고정되어 있고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항상 증가한다.
- ㄴ. 합계출산율이 5나 6인 사회는 표에 제시된 어떠한 기대수명에 대해서도 65세 미만 인구가 95%를 넘는다.
- ㄷ. 기대수명이 50세에서 80세로 변하는 경우와 합계출산율이 6에서 2로 변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가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 ㄹ. 합계출산율이 줄어들면 기대수명은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24. <표>와 <정보>는 최근 3년간 상위 5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이다. A, B, C, D, E 항목에 들어갈 제조업체를 A-B-C-D-E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표> 상위 5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출하량과 시장점유율

제조업체	2004		2005		2006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A	207,600	30.5%	264,900	32.5%	327,148	32.6%
B	104,500	15.4%	146,000	17.9%	210,912	20.9%
C	86,522	12.7%	102,940	12.6%	115,492	11.4%
D	44,445	6.5%	54,861	6.7%	64,882	6.4%
E	42,480	6.2%	51,000	6.3%	62,385	6.2%

<정 보>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감소율은 매년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 병과 정은 2005년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이 200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지만, 2006년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는 출하량이 매년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였다.
- 2006년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회사는 을이고, 2004년과 2006년의 시장점유율이 같은 회사는 는 병이다.

	A	B	C	D	E
①	갑	을	정	무	병
②	갑	을	무	병	정
③	갑	을	무	병	정
④	을	갑	무	병	정
⑤	을	갑	무	병	정

25. <정보>와 <표1>, <표2>를 바탕으로 A, B, C의 열차운임의 합계를 구하면?

<정 보>

17일(월) 대구에서 열리는 환경 보존 세미나가 있어 국회 직원들이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게 되었다.
 A는 17일 당일 광명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9일 전에 예매하였다. B는 17일 당일에 광명역에서 동대구역 기차표를 구매하였다. C는 대구에 있는 친지 방문을 위해서 16일에 서울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전월 30일에 예매하였다. 단, 환경 보존 세미나는 공휴일에 열리지 않는다.

<표1> 열차 운임표

→역간운임(원)

	서울	8,000	12,000	21,000	28,000	30,000	34,000
	22.0	광명	10,000	19,000	27,000	28,000	32,000
↓ 역 간 거 리 (km)	96.0	74.0	천안 아산	8,000	16,000	18,000	23,000
	159.8	137.8	63.8	대전	8,000	10,000	15,000
	247.3	225.3	151.3	87.5	김천	8,000	8,000
	270.2	248.2	174.2	110.4	22.9	구미	8,000
	319.8	297.8	223.8	160	72.5	49.6	동대구

<표2> 열차 할인율

구 분		열차출발일	
		월~금요일	토·일·공휴일
승차권 구입 시기	열차출발 2개월전부터 30일전까지	20%할인	10%할인
	열차출발 29일전부터 15일전까지	15%할인	7%할인
	열차출발 14일전부터 7일전까지	10%할인	4%할인

- ① 89,700원 ② 90,560원
- ③ 91,400원 ④ 92,420원
- ⑤ 93,970원

26. 다음 <표>는 우리나라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3/4분기		2007년 2/4분기		2007년 3/4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소 득	3,056.6	(3.7)	3,092.2	(3.5)	3,282.4	(7.4)
실 질	2,970.4	(1.1)	2,956.2	(1.0)	3,117.2	(4.9)
경 상 소 득	2,925.9	(4.1)	2,939.6	(3.6)	3,113.3	(6.4)
근로소득	1,966.5	(5.6)	1,955.6	(4.3)	2,119.0	(7.8)
기타소득	959.4	(1.1)	984.0	(2.3)	994.3	(3.6)
비 경 상 소 득	130.7	(-4.7)	152.6	(0.8)	169.1	(29.4)
소 비 지 출	2,063.6	(0.7)	2,102.2	(3.6)	2,228.4	(8.0)
실 질	2,005.4	(-1.7)	2,009.7	(1.2)	2,116.3	(5.5)
비소비지출	434.4	(11.9)	397.5	(5.8)	456.8	(5.2)
처분가능소득	2,622.2	(2.4)	2,694.6	(3.1)	2,825.6	(7.8)
후 자 액	558.6	(9.2)	592.4	(1.4)	597.2	(6.9)
후 자 율	21.3	-	22.0	-	21.1	-
평균소비성향	78.7	-	78.0	-	78.9	-

- 주 :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처분가능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후자액=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후자율= (후자액/처분가능소득) × 100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실질소비지출= (당해년도 소비지출/전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 × 100

<보 기>

ㄱ. 각 분기의 소득과 실질소득은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ㄴ. 각 분기의 소비지출과 실질소비지출은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ㄷ. 소비지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날수록 후자액과 후자율이 모두 증가한다.
 ㄹ. 2007년 3/4분기 가계수지를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후자액이 증가하였음에도 후자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ㅁ. 2007년 3/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7. 다음 <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자	15세이상인구(천명)	17,522	17,720	17,921	18,119	18,312	18,616	18,863
	경제활동인구(천명)	13,034	13,172	13,435	13,539	13,727	13,883	13,977
	취업자(천명)	12,387	12,581	12,944	13,031	13,193	13,330	13,444
	실업자(천명)	647	591	491	508	534	553	533
	비경제활동인구(천명)	4,488	4,548	4,486	4,580	4,585	4,733	4,886
	경제활동참가율(%)	74.4	74.3	75.0	74.7	75.0	74.6	74.1
	실업률(%)	5.0	4.5	3.7	3.8	3.9	4.0	3.8
	고용률(%)	70.7	71.0	72.2	71.9	72.0	71.6	71.3
여자	15세이상인구(천명)	18,664	18,859	19,042	19,220	19,405	19,683	19,899
	경제활동인구(천명)	9,101	9,299	9,486	9,418	9,690	9,860	10,000
	취업자(천명)	8,769	8,991	9,225	9,108	9,364	9,526	9,706
	실업자(천명)	332	308	261	310	326	334	294
	비경제활동인구(천명)	9,563	9,560	9,556	9,802	9,715	9,823	9,899
	경제활동참가율(%)	48.8	49.3	49.8	49.0	49.9	50.1	50.3
	실업률(%)	3.6	3.3	2.8	3.3	3.4	3.4	2.9
	고용률(%)	47.0	47.7	48.4	47.4	48.3	48.4	48.8

주: 1)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2)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3) 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4) 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2000년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경제활동참가율인 74.4%와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인 48.8%를 더하여 2로 나눈 61.6%이다.
- ㄴ. 15세이상인구와 취업자 수가 모두 일정한 경우,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항상 감소한다.
- ㄷ. 취업자 수가 일정한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는 실업자 수와 양(+)의 관계에 있다.
- ㄹ.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ㄹ

28. 다음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중 ‘소득동차성’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동차성은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공리임)

<설 문>

- 문1) (5, 8, 10)의 소득분포가 (10, 16, 20)의 소득분포로 변하였을 경우
 - a.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 b. 불평등도는 불변이다.
 - c.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 문2) (5, 8, 10)의 소득분포가 (10, 13, 15)의 소득분포로 변하였을 경우
 - a.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 b. 불평등도는 불변이다.
 - c.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 문3)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각 개인의 소득이 모두 두 배가 되었을 경우
 - a.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 b. 불평등도는 불변이다.
 - c.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 문4)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각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더해준 경우
 - a.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 b. 불평등도는 불변이다.
 - c.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표>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응답자 수(명)	문 1)			문 2)			문 3)			문 4)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한국	691	47	22	31	11	19	70	41	30	29	7	41	52
미국	1,108	35	51	14	9	31	60	40	47	13	6	35	59

- ①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③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소득을 더해준 경우를 수치로 표현했을 때, 불평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많다.
- ④ 똑같이 소득이 두 배 증가하는 경우에 수치로 표현했을 때보다는 문자로 표현했을 때 한국과 미국 모두 불평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 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동차성은 미국에 비해 한국 응답자의 경우에 더욱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9. 입법조사관 A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로 활용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은?

민선1기(95.7~98.6)를 대상으로 한 지역구 정당구도의 유형은 여당지배형인 유형과 야당지배형인 유형이 각각 43개(18.7%)와 42개(18.3%)였고, 여당단체장/변화형, 야당단체장/변화형, 무소속단체장/변화형인 유형이 각각 27개(11.8%), 65개(28.2%), 53개(23%)였다. 그리고 1998년 6월 30일 민선2기 출범 후 2000년 말까지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적변동 현황은 여당유지 48.5%, 야당유지 23.3%, 무소속유지 11.5%, 당적변동 16.7%로 나타나 야당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무소속단체장들에게서 당적변동이 심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민선2기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과 광역의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서울·인천·광주·대전·경기가 여지배 지역으로, 부산·대구가 야지배 지역으로, 강원과 충북이 분점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적변동 현황은 여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74개, 야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73개, 당적이 변화하는 경우가 83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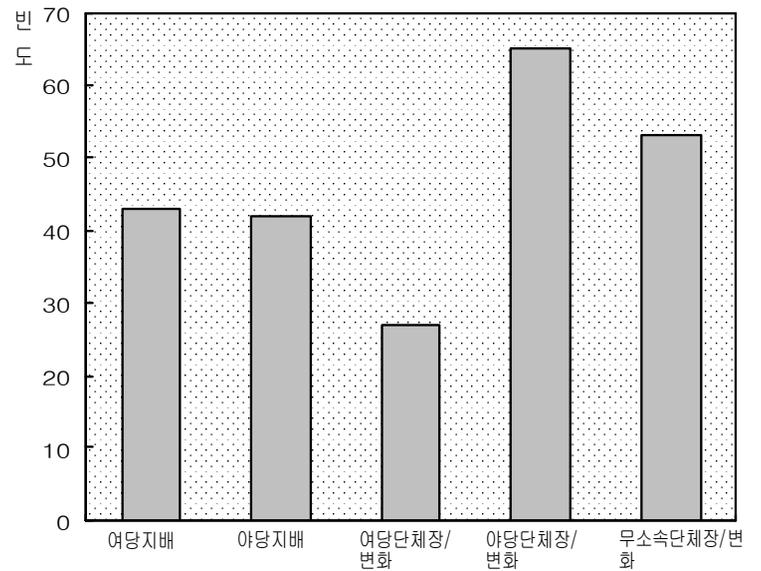
① 기초자치단체장 당적변동 현황(민선2기)

구분	여당유지	야당유지	무소속유지	당적변동	
민선 2기	시	33	14	9	14
	군	42	18	11	21
	구	35	21	6	3
	전체	110	53	2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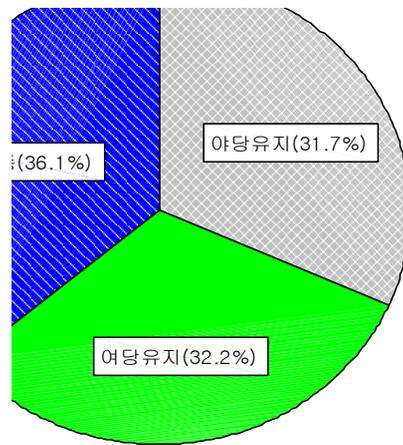
② 광역정당구도(민선2기)

시도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종합 분류
	당적	당적	
서울	여	여	여지배
부산	야	야	야지배
대구	야	야	야지배
인천	여	여	여지배
광주	여	여	여지배
대전	여	여	여지배
경기	여	여	여지배
강원	야	야→여	분점
충북	여	여→야	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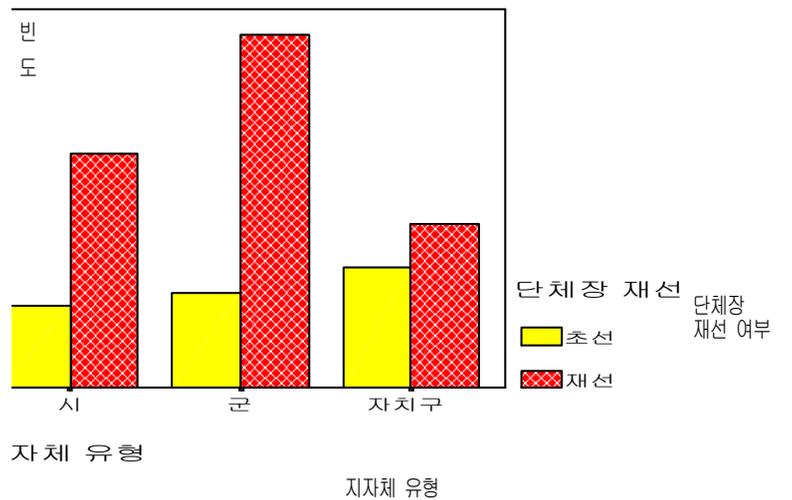
③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정당구도 유형별 분포(민선1기)



④ 지역구 국회의원 당적변동 현황(민선2기)(전체 2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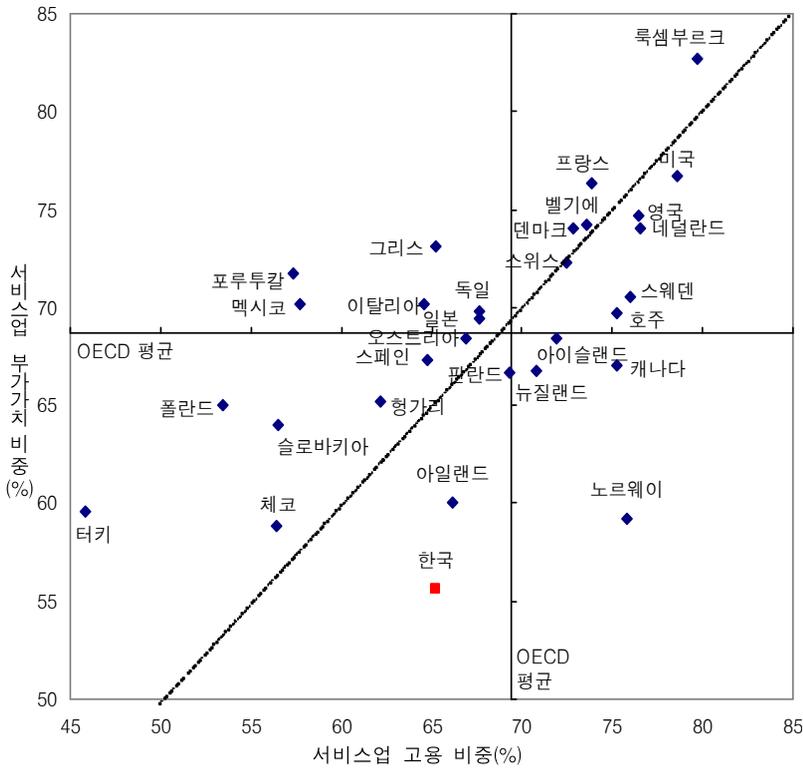


⑤ 기초자치단체유형(시·군·자치구)별 재선 및 초선 단체장 분포(민선2기)



30. 다음 <그림>은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주 : 1) 점선은 원점으로부터의 45도선을 나타냄.
2) 서비스업 상대생산성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서비스업 고용 비중

<보 기>

- ㄱ.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ㄴ. OECD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가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고, 터키가 서비스업 고용 비중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낮다.
- ㄷ.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한국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
- ㄹ.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와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서비스업 상대생산성은 미국, 영국에 비해 높다.
- ㅁ.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30개국을 통틀어 서비스업 상대생산성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31. 다음 <표>는 A~H 8개국의 2006년 국가별 국민 1인당 교육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6년 국가별 국민 1인당 교육비

(단위 : 원)

구분	1인당 초등교육비 (A)	1인당 중등교육비 (B)	1인당 고등교육비 (C)	1인당 교육비 (A+B+C)
A국	4,351	5,518	11,550	21,419
B국	3,155	4,069	6,118	13,342
C국	1,235	2,238	11,237	14,710
D국	6,995	8,855	20,358	36,208
E국	1,011	1,219	2,057	4,287
F국	4,486	7,636	8,373	20,495
G국	6,631	9,780	18,450	34,861
H국	4,697	6,386	12,168	23,251

<보 기>

- ㄱ. 모든 국가에서 1인당 초등교육비는 그 국가의 1인당 중등교육비나 1인당 고등교육비보다 항상 작다.
- ㄴ. G국가의 총 교육비에서 총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B국가의 총 교육비에서 총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크다.
- ㄷ. H국가의 총 교육비는 8개국 중 3위이다.
- ㄹ. 1인당 중등교육비가 가장 큰 국가는 1인당 고등교육비도 가장 크다.
- ㅁ. A, D, E, F 국가 중에서 총 초등교육비가 가장 작은 국가는 E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ㅁ

32. 다음 <그림>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및 밀가루 소비량의 시계열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및 밀가루 소비(1980년~2005년)

〈보 기〉

ㄱ. 1인당 연간 쌀 소비는 1990년 이후 매년 감소해 왔다.
 ㄴ.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는 1981년~1986년 기간에 비해 2000년~2005년 기간에 더 많이 감소했다.
 ㄷ. 전년에 비해 1인당 연간 쌀 소비의 감소량이 가장 큰 해는 1995년이다.
 ㄹ. 전년에 비해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의 증가량이 가장 큰 해는 1998년이다.
 ㅁ. 1980년~2005년 기간의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와 쌀 소비의 감소량은 유사하다.

-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3. 다음 <표>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 수(비중)								보육 아동 수
	국공립	개인	법인 외	법인	직장	놀이방	부모 협동	계	
1995	1,029 (11.3)	3,175 (34.9)	22 (0.3)	928 (10.2)	87 (1.0)	3,844 (42.3)	-	9,085 (100.0)	293,747
1997	1,158 (7.5)	6,388 (41.6)	150 (1.0)	1,634 (10.6)	158 (1.0)	5,887 (38.3)	-	15,375 (100.0)	520,959
2000	1,295 (6.7)	8,970 (46.5)	324 (1.7)	2,010 (10.4)	204 (1.1)	6,473 (33.6)	-	19,276 (100.0)	686,000
2001	1,306 (6.5)	9,490 (47.2)	313 (1.6)	1,991 (9.9)	196 (1.0)	6,801 (33.8)	-	20,097 (100.0)	734,192
2002	1,330 (6.0)	10,471 (47.0)	575 (3.0)	1,633 (7.0)	199 (1.0)	7,939 (36)	-	22,147 (100.0)	800,991
2003	1,329 (5.5)	11,225 (46.5)	787 (3.3)	1,632 (6.8)	236 (1.0)	8,933 (37.0)	-	24,142 (100.0)	858,345
2004	1,349 (5.0)	12,225 (45.4)	966 (3.6)	1,537 (5.7)	243 (0.9)	10,583 (39.4)	-	26,903 (100.0)	930,252
2005	1,473 (5.2)	12,769 (45.0)	979 (3.5)	1,495 (5.3)	263 (0.9)	11,346 (40.0)	42 (0.1)	28,367 (100.0)	989,390
2006	1,643 (5.6)	12,864 (44.0)	1,066 (3.6)	1,475 (5.0)	298 (1.0)	11,828 (40.5)	59 (0.2)	29,233 (100.0)	1,040,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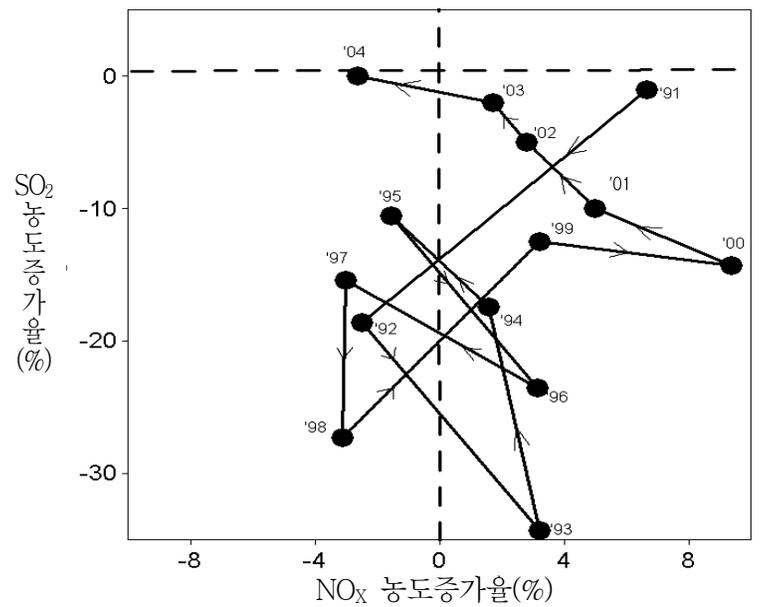
〈보 기〉

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하였다.
 ㄴ. 개인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을 합한 비중보다 크고, 놀이방 보육시설의 비중보다 크다.
 ㄷ. 2006년에 전년 대비 보육시설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시설은 부모협동보육시설이다.
 ㄹ.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1995년 이래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1995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ㅁ. 1995년에 비해 2006년의 보육아동 수는 증가하였지만 보육시설 1개소당 보육아동 수는 감소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34. 다음 <그림>은 1991년부터 2004년 동안 어느 도시의 전년 대비 아황산가스(SO₂)와 질소산화물(NO_x)의 농도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전년 대비 아황산가스(SO₂)와 질소산화물(NO_x) 농도증가율(%)



주: 1) SO₂ 농도증가율(%) = $\frac{(\text{해당년도 SO}_2\text{농도} - \text{전년도 SO}_2\text{농도})}{(\text{전년도 SO}_2\text{농도})} \times 100$
 2) NO_x 농도증가율(%) = $\frac{(\text{해당년도 NO}_x\text{농도} - \text{전년도 NO}_x\text{농도})}{(\text{전년도 NO}_x\text{농도})} \times 100$

〈보 기〉

ㄱ. SO₂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ㄴ. NO_x 농도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ㄷ. 조사기간 동안 SO₂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해는 1993년이다.
 ㄹ. 조사기간 동안 NO_x 농도의 감소 현상은 5차례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매년 4%를 넘지 않았다.
 ㅁ. 조사기간 동안 전년에 비해 NO_x 농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1992년이며,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1999년이다.

- ① ㄱ, ㄹ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35. <표1>과 <표2>는 2000년과 2006년도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의 입지상지수(LQ)가 각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생산물이 유입되는지 혹은 유출되는지를 설명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2000년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인구 비율

(단위 : %)

지역	농업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전체산업
A	0.3	19.1	80.6	100.0
B	2.4	23.5	74.1	100.0
C	5.1	25.2	69.7	100.0
D	19.9	10.0	70.1	100.0
E	32.0	15.2	52.8	100.0
F	37.1	8.5	54.4	100.0
G	30.0	16.5	53.5	100.0
전체	10.6	20.4	69.0	100.0

<표2> 2006년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인구 비율

(단위 : %)

지역	농업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전체산업
A	0.2	15.3	84.5	100.0
B	1.5	18.7	79.8	100.0
C	3.2	21.0	75.8	100.0
D	16.2	8.2	75.6	100.0
E	23.6	15.6	60.8	100.0
F	29.0	9.0	62.0	100.0
G	24.1	17.5	58.4	100.0
전체	7.7	18.1	74.2	100.0

<정 보>

※ j지역의 i산업 입지상지수(LQ지수)

$$(LQ_{ij})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고용인구} / j\text{지역의 총고용인구}}{i\text{산업의 총고용인구} / \text{전체 총고용인구}}$$

- $LQ_{ij} > 1 \Rightarrow j$ 지역은 i 산업의 생산물을 외부로 유출
- $LQ_{ij} < 1 \Rightarrow j$ 지역은 i 산업의 생산물을 외부에서 유입

<보 기>

- ㄱ. A, B 지역은 2000년과 2006년에 모두 농산물과 수산물, 광공업 생산물을 외부에서 유입하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생산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
- ㄴ. E, F, G 지역은 2000년과 2006년 모두 농산물과 수산물을 외부로 유출한 반면 광공업 생산물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생산물을 외부에서 유입하였다.
- ㄷ. G 지역의 2006년 농업어업 LQ지수는 2000년보다 크다.
- ㄹ. E 지역의 2006년 광공업 LQ지수는 2000년보다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6. 다음 <표>는 수산물 원산지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항목	당사자집단			일반국민	전체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소계			
규제인식도	1. 인지도	98.0	98.1	98.0	95.7	97.0
	2. 이해도	82.3	84.8	82.9	76.0	79.8
	3. 내용명확성	49.2	56.0	50.6	-	50.6
	소계	76.7	79.7	77.3	85.8	80.3
규제인정도	4. 규제필요성	82.3	94.7	84.9	95.5	89.7
	5. 수준적절성	50.8	57.6	52.2	-	52.2
	6. 목적부합성	83.8	95.4	86.2	93.0	89.2
	소계	72.4	82.6	74.5	94.3	81.4
규제준수도	7. 준수율	48.3	31.1	44.7	15.5	31.5
	8. 행정력(효과)	37.6	3.9	30.7	-	30.7
	9. 벌칙적절성	36.1	34.2	35.8	8.0	23.1
	소계	40.7	22.9	37.1	11.7	28.1

<보 기>

- ㄱ. 수산물 원산지 규제에 대한 집행공무원의 인식도와 인정도는 피규제집단에 비해 높다.
- ㄴ. 일반국민은 수산물 원산지 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집행공무원은 행정력(효과)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ㄷ. 수산물 원산지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집행공무원 집단이다.
- ㄹ. 피규제집단은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산물 원산지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ㅁ. 수산물 원산지 규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37. 어느 마을에 질병으로 인해 3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100명에게는 응급처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200명은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300명을 30일 동안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그림>과 같이 누적완치율로 표시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날짜별 누적완치율

주: 1) 일일완치율 = $\frac{\text{각 시점에서의 완치자 수}}{\text{전체 환자 수}}$

2) 누적완치율 = $\frac{\text{각 시점까지의 완치자 수}}{\text{전체 환자 수}}$

<보 기>

- ㄱ. 30일까지의 누적완치율은 응급처치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 ㄴ. 응급처치를 한 경우와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완치되지 않은 환자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 ㄷ. 응급처치를 한 경우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일완치율이 25일까지는 높다.
- ㄹ.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일일완치율은 대체로 일정하다.

- ① ㄱ ② ㄱ, ㄴ
- ③ ㄱ, ㄷ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8. <표1>과 <표2>는 실내공기질 기준 및 교육시설의 주요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실내공기질 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치
포름알데히드 (µg/m ³)	120
총부유세균 (CFU/m ³)	800
미세먼지 (µg/m ³)	100

<표2> 교육시설의 주요 오염물질

오염물질	교육시설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포름알데히드 (µg/m ³)	유치원	174.3	40.2	616.7
	초등학교	134.1	13.4	630.1
	중학교	160.9	13.4	1219.9
	고등학교	160.9	13.4	1219.9
총부유세균 (CFU/m ³)	유치원	1474.7	272.0	4646.0
	초등학교	1309.2	141.0	4675.0
	중학교	1178.7	150.0	5152.0
미세먼지 (µg/m ³)	유치원	94.9	26.0	216.0
	초등학교	66.0	16.0	294.0
	중학교	83.5	16.0	270.0
	고등학교	86.0	26.0	221.0

<보 기>

- ㄱ. 유치원의 평균 포름알데히드값은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40% 이상 초과했다.
- ㄴ. 조사대상인 모든 교육시설의 미세먼지의 오염수준은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
- ㄷ. 중학교의 경우 평균 총부유세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율은 평균 포름알데히드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율보다 낮다.
- ㄹ. 포름알데히드의 오염수준이 기준치의 5배 이상인 초등학교도 있다.
- ㅁ. 총부유세균의 오염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